+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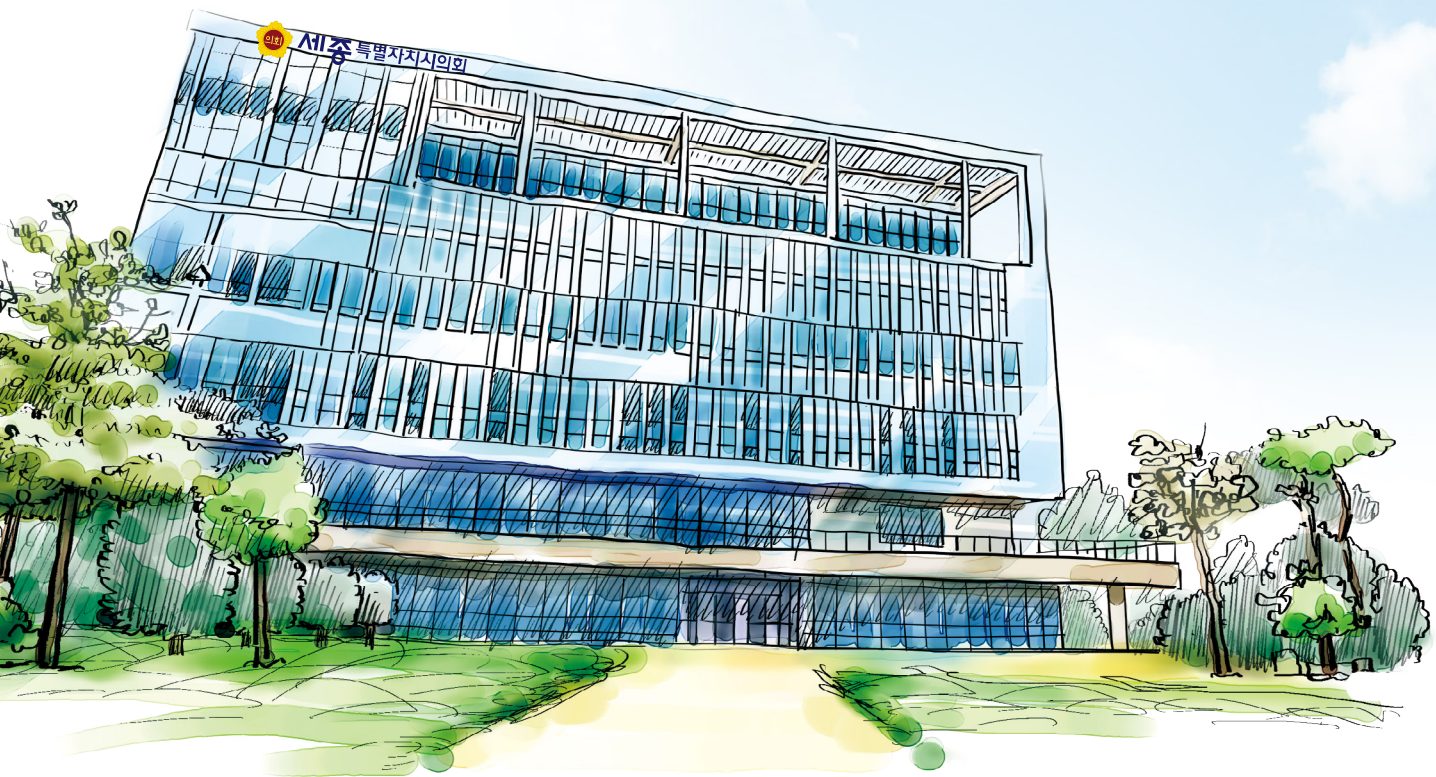
가을호

2023년
통권 제3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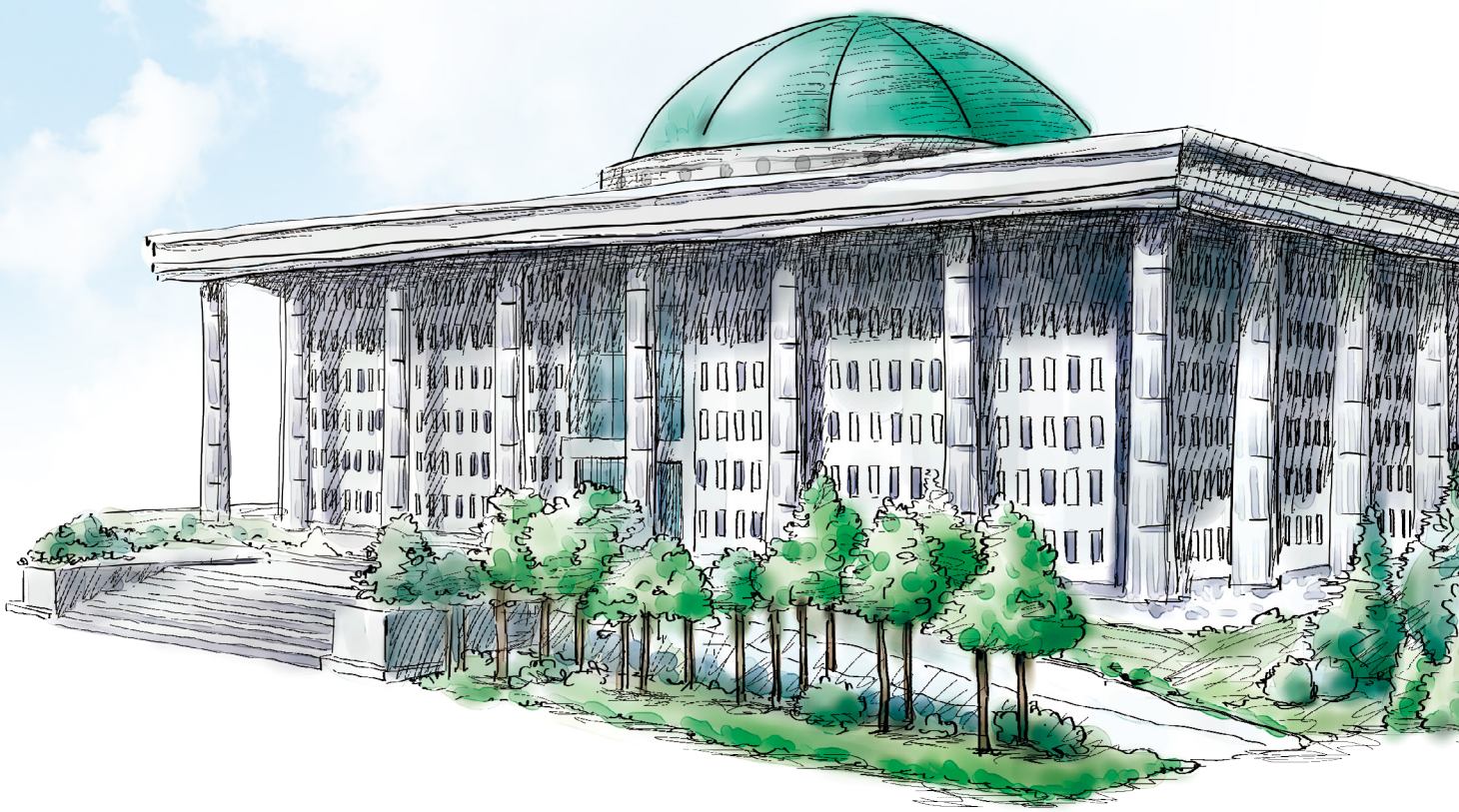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국회규칙 통과
환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임시회 개회사

*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폭염에 이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참담함과 허망함에 힘들어 하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과 수해에 대응하여 비상근무를 하며 시민 안전을 지켜주신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이제 4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경기장 공사 차질 등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폭염과 조직위의 준비 부족으로 파행 직전까지 갔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례는 공동유치한 충청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간은 물론 정부, 조직위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학교변호사 제도 등의 정책이 일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을 청취합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의 먹거리 안전과 수산업계 소비 위축이 걱정입니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이를 신뢰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순 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목차

표지이야기
가을을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아마도 '결실'일 것이다. 작열하는 여름을 겪은 잎은 단풍으로 물들고, 장마를 이겨낸 작물은 제 색채를 찾아간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맞이한 가을에는 어떤 수확이 있었을까? 세종이라는 대지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양분삼아 자란 세종시의회의 결실, 그 가을의 소식을 담아본다.

04 **제84회 임시회 개회사**
08 **의정포커스**
12 **결의안**
17 **주요안건처리현황**
27 **환영논평**
28 **의회인터뷰**
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
Ⅱ 윤리특별위원장 윤지성
Ⅲ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김광운
Ⅳ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김효숙

2023 통권 제37호
발 행 일 2023년 10월 19일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 행 인 이순열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42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50 **긴급현안질문**

51 **5분 자유발언**

60 **주요언론보도**

62 **사무처 돋보기**
- Ⅰ 세종시의회, 인사권 홀로서기
- Ⅱ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

70 **시민을 듣다**

72 **의정주요뉴스**

75 **연구모임뉴스**

77 **입법정보**
- Ⅰ 생활법령
- Ⅱ 주요입법동향
- Ⅲ 법령해석사례
- Ⅳ 최근시행법령
-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94 **의회 홍보채널 소개 & 회기 일정**

95 **독자 투고 안내 & 구독 신청**

FOCUS 01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37일간의 회기 마무리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비롯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의결이 이뤄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5월 22일 제8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7일까지 37일간의 회기를 진행했다.

5월 22일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9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이순열·박란희·김재형·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이현정 의원이 '세종시가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하라'고 제언하는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행정 연설과 제안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 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6월 27일, 3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며 제83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4건,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FOCUS 02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115건 안건 처리

“김현미·여미전·박란희·유인호·김재형·김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 긴급현안질문
이소희 의원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8일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7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긴급현안질문 1건, 보고 6건, 선임안 1건, 기타 3건을 포함한 총 1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종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가결하였다.

세종시의회는 마지막으로 9월 7일 오전 10시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아울러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건설공사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55건,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37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원석 의원 발의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한 설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국회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 발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촉구 결의안 제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현재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문화체육부 간의 2027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조직위 구성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라며 “세종시의 경우, 폐막식을 위한 대평동 종합경기장과 선수촌 건설 준비를 담당하는 등 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도약을 염원하는 충청인들의 희망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문제에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은 대회 준비뿐 아니라 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 지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충청인들이 대회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여미전 의원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양 방류 강행, 즉각 철회해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채택,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등에 이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미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로 파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에 이송했다.

김동빈 의원 발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한 광역 교통시설 확충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경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KTX 세종역’ 설치 요구 수용 ▲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사업 선정과 조속한 추진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했다.

이소희 의원 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부여 및 자족기능 강화 위한 법 개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희 의원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라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23. 5. 22.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긴급현안질문	-	
제2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제3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소희, 이순열 의원)	원안가결	
제4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 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제6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시청, 교육청)		
제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제9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원안가결	
제10항	의장 불신임 결의안	원안가결	
제11항	휴회의 건	원안가결	

2차 본회의

2023. 6. 15.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항	긴급현안질문	-
의 회 운 영 위원회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 · 면 · 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원안가결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2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3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 정 복 지 위원회	제29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34항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5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원안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찬성의견
교 육 안 전 위원회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60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 ·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대 학 특 위	제66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본회의	제67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	원안가결
	제68항	제2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원안가결
	제69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건	원안가결
	제70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71항	휴회의 건(6.16.~6.26., 11일간)	원안가결

3차 본회의

2023. 6. 27.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 회 운 영 위원회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원안가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원안가결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행 정 복 지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산 업 건 설	제6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교 육 안 전	제7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회계과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9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10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예 산 담당관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제1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원안가결
행 정 지원과	제1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1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조 직 예산과	제15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제17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본회의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보임의 건	원안가결
	제21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2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윤 리 특 위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23. 8. 28.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제2항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3항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원안가결	
제5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제6항	휴회의 건(2023. 8. 29. ~ 9. 6., 9일간)	원안가결	

2차 본회의

2023. 9. 7.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항	긴급현안질문	-
의 회 운 영 위원회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가결
행 정 복 지 위원회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 정 복 지 위원회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0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53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제64항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70항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원안가결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8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수정가결
	제9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 업 건 설 위원회	제9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	원안가결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제9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6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9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제9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100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교 육 안 전 위원회	제10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0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1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원안가결
	제1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장 제의	제115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원안가결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뜨거운 환영을 표한다.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더불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염원을 부지런히 국회에 실어 날랐다.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은 국회세종의사당은 이제 착공만을 앞두게 되었다. 국회규칙 통과의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신호탄이다. 세종시의회는 이 신호탄을 출발선으로 삼아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Interview

시민의 혈세, 낭비 없도록 '깐깐한 곳간 지킴이' 될 것

지자체의 예산은 시민이 흘린 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쓰였는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김현옥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 심사와 의결의 중심에서 '깐깐한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곳간의 문 앞에 선 수장,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봤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감이 궁금하다.

A 일단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다. 그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위원장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A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검사를 시행한다. 관련된 안건을 심사 및 의결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적재적소로의 예산 배분으로 교육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Q 세종은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두는 단층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의 지역에서는 예산, 결산 분야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좋은 지적이다. 광역 업무와 기초 업무를 같이 보는 우리시는 타시도에 비해 행정적 실무를 이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 관할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관할 구역이 넓어지지만, 시민과는 더욱더 근접거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어려운 부분과 더욱 더 중첩되는 것이 재정난 악화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시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기업 유치 과제와 지역기업의 여건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모두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하는 모든 주체들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Q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접근하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예결특위는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 예산·결산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심사 및 의결 처리한다. 그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나아가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배분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다 읍, 면, 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이더라도 시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율과 협의를 끌어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예결특위가 해결해 나갈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현재 우리시는 교육, 보건, 환경은 물론 도로, 교통, 주택,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기초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수요가 증대했다. 반면에,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악화는 지속해서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 및 지방채 발행 등을 면밀하게 살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예결특위를 이끌어 감에 있어 위원장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원칙과 타당성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고, 더불어 시급성을 판단하는 안목까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과 결산은 모두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특위로 온다. 하지만 가끔 상임위나 더군다나 집행부도 거치지 않고 오는 예산들이 있다. 이를 '쪽지 예산'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절차를 거쳐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타당성은 명시 이월, 전용 등 예산이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원칙을 세워, 즉 타당한지를 파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얼마 전 폭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부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시급성을 파악해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라도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보고된 자료만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와 더불어 보이지 않고 은폐된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며 시급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나갈 필요도 있다.

Q 김현옥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A 어느 의원님이든 본인만의 역량과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면 모두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굳이 고르자면 현장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수행력이 아닐까. 의원으로 입성하기 전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발로 뛰고, 시민을 직접 만나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시민의 삶이 곧 저의 삶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시의원도 결국 그 변화를 몸소 느끼며 살아갈 시민의 일부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사소한 불편함,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이나 동네 하수구 문제,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 등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작은 불편을 개선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친화력을 발휘해 시민분들과의 신속한 만남을 도모하고 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소통'이라는 역량이 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Q 예결특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A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곳간을 지켜야 하는 '깐깐한 곳간 지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예결특위는 세종시의 예산이라는 곳간에서 허투루 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인해야 한다.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소중한 자금이다. 그만큼 매우 깐깐하게 봐야 한다. 이는 세종시 전체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직결된 부분이다. 그 때문에 앞으로 '깐깐한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겠다고 말씀드린다.

Q 끝으로 포부를 담아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A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전시성 사업,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시설사업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및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보편적 복지에 힘쓰겠다. 명실상부 행정수도에 걸맞은 생활환경과 복지를 제공해 시민분들의 편익 도모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맞춰 나가겠다.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란다.

> 명실상부 행정수도에 걸맞은 생활환경과 복지를 제공해 시민분들의 편익 도모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맞춰 나가겠다.

Interview

‘청렴한 의회’ 만들고자 노력할 것

지방의회는 선출직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때문에 39만 세종시민은 그들의 눈과 입을 대신하도록 직접 뽑은 의원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길 바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켜내기 위해 의회 내부의 자정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의정활동 중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파악하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 어려운 사안이 많은 만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아도 어려운 직책이다. 같은 뜻으로 나아가던 동료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 이 무거운 이름을 안게 될 **윤지성 윤리특별위원장**을 만나보자.

Q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감은?

A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자리인 만큼 부담감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세종시의회의 윤리상을 정립하고 윤리 의식을 제고함과 더불어 자정능력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Q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A 만약 지방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의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주축이 되어 그 과정을 이끄는 위원회다. 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Q 윤리특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A 의회의 '자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동료의원의 잘잘못을 따지고 징벌 수위를 결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의회 자정을 위해 없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표로써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으로 갖춰야 할 청렴과 도덕성을 의원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특위의 역할일 것이다.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한 차원 높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끝으로 포부를 담아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A 공직자에게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이자 의무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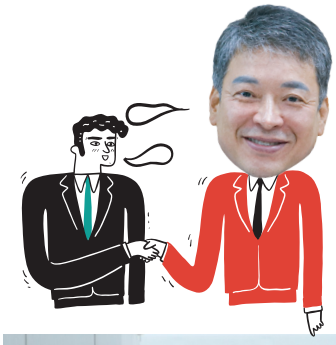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시민이 바라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치하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점점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윤리에 대해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어렵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Interview

소통과 협치, ‘완급조절’이 관건

김광운 의원은 2022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올해로 두 번째 그 직책을 연임했다. 같은 직책을 연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걸맞은 역량이 있기 마련이다. 김광운 의원이 가진 역량은 무엇일까, 그는 '완급조절에 능한 탄성'이 그 역량이라고 자평했다. 소통, 수렴, 협치의 과정에서 원내대표는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하지만 때로는 구부러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론이다. 협치와 협동, 그 소통의 길을 트기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하겠다는 **국민의힘 김광운 교섭단체대표**를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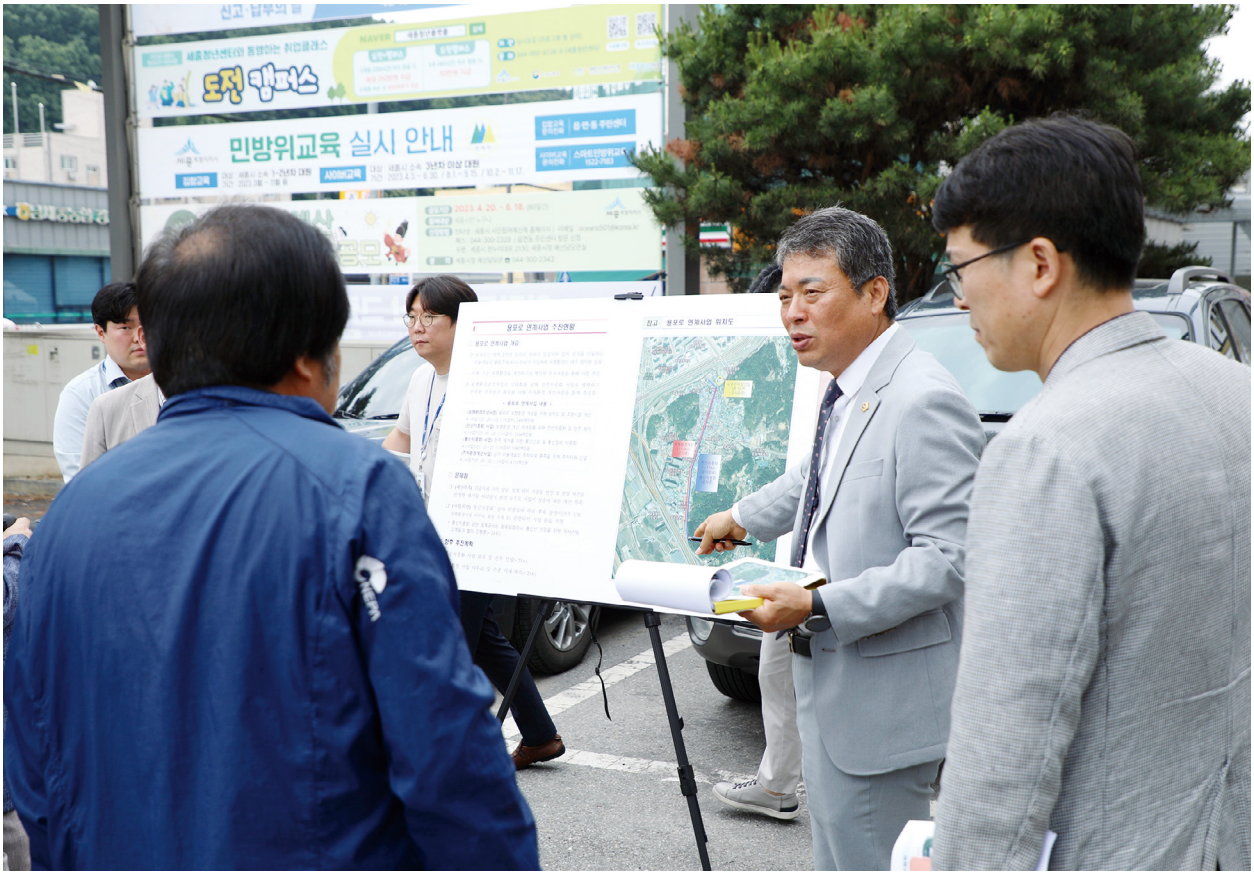
Q 지난해에 이어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됐다. 재임 소감이 궁금하다.

A 당내 및 당 대 당을 교섭하는 교섭단체대표는 의회 내에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를 아우르는 소통의 역량이 필요한데, 지난 1년간 그 역량이 길러지고, 더 단단해졌다. 의원님들도 소통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제 지난 경험을 살려 일 년 더 대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일하며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다. 그 모든 경험을 발판 삼아 막중한 책임감으로 활동하려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협치하는 것을 최대 중점으로 둘 것이다.

Q 교섭단체의 대표가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앞서 잠시 언급했듯 교섭단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과 당, 당과 당 사이의 의견을 잇는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갈등의 중심에서 화합의 가능성을 찾아서 갈고 닦아야 하는 역할이랄까. 내부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섭을 끌어낼 때는 적절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에 맞닿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완급조절'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바라는 것, 당에서 바라는 것, 그리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다르다. 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 속에서 강약 조절을 통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떤 장이든 하나의 조직을 이끄는 대표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급조절, 즉 '탄성'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하지만 때로는 구부러질 줄도 알아야 한다. 원내에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의견도 다양하다. 원 대 원의 형태가 되면 그 양상은 더욱 심화한다.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할 때는 굳건하게 지키되, 절충하고 양보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교섭단체의 대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한다.



Q 지방의회의 교섭단체가 국회의 교섭단체와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국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국가적인 교섭을 한다. 내부적으로도 교섭이 필요하지만, 외교라는 큰 대외적 요소까지 바라봐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다. 지방의 역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세종시에 맞는 역할만 하면 된다. 국회는 큰 흐름을 관장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작은 물줄기까지 눈여겨보고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중앙정치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에 조금 회의적인 편이다. 중앙정치의 방법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지방정치만의 방법으로, 지방정치의 발전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20명의 세종시의회 의원님은 모두 선출직이다. 시민의 손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달려갈 곳은 단 하나,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가진 강점을 발휘해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과 이야기해야 한다. 세종시라는 땅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 그것이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가진 차별점일 것이다.

”

시민의 행복이라는 결과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다가갈 것이며,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 협치 된 모습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하고 싶다.

Q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에서 교섭단체대표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A 사실 세종시의회 내에서 저희 당(국민의 힘)의 의석 비율이 낮다. 비율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교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소수당으로서의 애로사항이랄까. 수적으로 적으니 아무래도 교섭단체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힘들었다.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원내를 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점차 더 비율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앞으로 1년간은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가?

A 의석이 적지만, 그 적은 의석을 보완할 만큼 밀도 있는 원내, 옹골찬 원내를 만들고 싶다. 여야를 떠나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 그 마음을 기저에 두고 방법의 길에서 협치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를 끌어나가고자 한다. 사실 갈등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들 한다.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조한다. 갈등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여 하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의 과정에서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논의의 장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갈등이 감정적 이해관계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여야는 모두 대화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정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잡음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협치와 협동의 길이 트일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저는 교섭단체대표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 협치와 협동의 길을 최전방에서 일구고자 한다.

Q 교섭단체대표 김광운이 가지는 강점은 무엇인가?

A 세종시의회 의원님은 모두 저마다 훌륭한 역량을 가지셨다.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역량의 종류로 우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하지만 제가 가진 강점을 하나 꼽자면 앞서 언급한 '완급조절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수렴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는 등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탄성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고 싶다. 그리고 여야가 하나 되어 진정 세종시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Q 끝으로 포부를 담아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A 제4대 의회에 들어서며 세종시의회는 열정을 겸비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났다.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시민분들이 염려가 깊었을 것이다. 저희 20명의 의원 모두 정말 열심히 각자의 역할에 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그 염려를 조금 접어두시고 지켜봐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다. 지난 1년은 과도기였다. 앞으로 나아가려던 준비들이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비친 것 같아 아쉽다. 제4대 의회는 앞으로 2년, 3년, 그리고 4년을 맞이할 것이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남은 기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려 한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결과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다가갈 것이며,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 협치 된 모습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하고 싶다.

Interview

교섭단체대표, 지혜로운 눈과 귀, 그리고 입을 가져야…

지난 7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새 얼굴이 선임되었다. 김효숙 신임 교섭단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당론을 수렴하기 위해 눈, 코, 입이 아닌 지혜로운 눈, 귀, 입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입가에는 사뭇 진지한 포부가 묻어났다. 지방의회 출범 30년, 이제는 물리적 기관을 넘어서 지방의회가 하나의 문화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넘어 진심을 담아’ 일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김효숙 의원**, 그 뜨거운 열정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Q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되신 소감이 궁금하다.

A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놀랐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세세하게 신경 쓰고 이끌어야 할 일이 많은 직책이라고 느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 시의원이 되고 1년 동안은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사안에 몰입해 일했다.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이 있다 보니, 의회 운영이나 원내와 관련한 일에는 상대적으로 신경 쓰지 못했다. 원내 활동,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1년은 원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집중하려 한다. 아울러 의원이 잘되기 위해선 의회도 잘 운영되어야 한다. 의회 사무처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Q 교섭단체의 대표가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눈, 코, 입이 아니라 지혜로운 눈, 귀, 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야를 최대한 넓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눈. 소수의 의견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담아내는 귀. 당론이 결정됐을 때 명확하고 논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입이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주로 거시적인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거나, 가려져 있는 문제를 놓치기 쉽다. 그 때문에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또한 다수의 의견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수반한다. 그렇기에 소수의 의견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당론이 나와도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인 말솜씨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여당 교섭단체 대표님 및 여당 의원님들과도 소통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Q 앞으로 세종시의회에서 교섭단체대표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지난 1년을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오늘(23년 8월 8일) 기준으로 교섭단체대표로 활동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돕는 중간자 역할'이라고 느꼈다. 의원들이 조금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 내부에서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의견 수렴과 타협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도 막을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많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경험치를 지닌 의원님들이 적었다. 저 또한 그중 하나다. 그렇기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고 큰 갈등도 생기고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울퉁불퉁한 길을 잘 닦아내어 다치는 사람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섭단체대표로서의 과제일 것이다.

Q 김효숙 의원이 교섭단체대표이기에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A 저는 기자로도 일해봤고, 국회 보좌진 경험도 있다. 두드러지는 역량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의회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곳이다. 기자로서 시민과 소통했던 경험, 보좌진으로서 선거 실무를 이행하며 민심을 헤아렸던 경험이 모두 제 역량이 됐다. 이를 기반으로 의원님들의 고충과 의견 등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자로 일했던 경험은 의정활동의 홍보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정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보다 더 원활하고 전략적으로 할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의원분들의 이야기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어떤 사안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발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 시민을 위해 내는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더불어 교섭단체대표로서 핵심 당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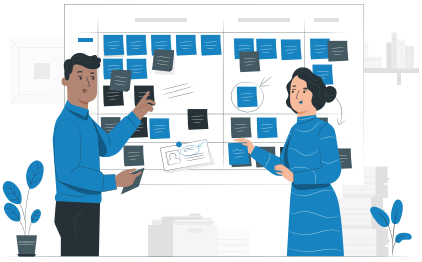
구성해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핵심 목표다.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종시를 이롭게 할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Q 끝으로 포부를 담아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A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가 출범 30년을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며,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라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 낸 여러 행정적 안전장치는 분명 최선의 방향으로 만든 것이지만 맹점도 있다.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항상 과연 내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잘잘못을 따질 능력과 경험치를 갖추었는지 늘 고민한다.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보다 알 수는 없지만, 의원, 위원으로서 적어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은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부와 함께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공무원분들이 보지 못하는 행정적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가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줘야 한다. 그리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

최선을 넘어 진심을 담아 4년간 일하다 보면 세종과 함께 나 자신도 성장하며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내실을 다져 야당과 여당이 힘을 모아야 의회가 단순한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라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질 것이다. 의회가 함께하는 도시, 의회가 함께하는 시민의 삶이 마치 익숙한 습관처럼 세종시에 새겨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지와 역할도 견고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행보에 관심과 응원으로 세종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의회가 함께하는 도시, 의회가 함께하는 시민의 삶이
> 마치 익숙한 습관처럼
> 세종시에 새겨지길 바란다.

의회

상임위원회 소식

의회운영위원회 • 43
교육안전위원회 • 44
행정복지위원회 • 46
산업건설위원회 • 48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Steering Committee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9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배정방식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해 줄 것과 사무처의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종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가결하였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Education Safety Committee

교권보호 방안 마련 위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1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교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소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과도한 민원 및 교권침해 사례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최근 교권보호 관련 입법 발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희 위원장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8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관하고 장비 현장 시연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최신 전문 장비와 소방용 드론을 활용한 지상화재 진압, 구조 방법, 이동형 지상관제 차량에서 대형 모니터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 장비 시연을 관람하고 장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신 대용량포 방수차 등 소방기동장비를 비롯한 시설 안전 및 보안시설을 두루 살펴보며 세종시에 필요한 장비를 모색했다.

또한 대한민국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 출전한 세종 119 구급대원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원들이 참여한 만큼 지역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직무상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소희 위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다채로운 장비를 살펴보며 발전하는 소방안전 장비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향후 소방본부 정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세종시가 소방안전분야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위원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심사했다. 이어 25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임채성 위원장은 "과도한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향후 의정활동을 펼쳐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의정모니터단과의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9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오병훈 분과장의 총평과 함께 제83회 정례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의정과 시정은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함과 더불어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는 순환과정의 연속이다. 모니터단의 활동보고서를 통해 의회의 입장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의정활동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적용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7건 심사·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44건 중 3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3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 및 사무공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하여 가결됐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청되어 조례안에 담긴 사안들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담아내 시민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

상병헌 위원

윤지성 위원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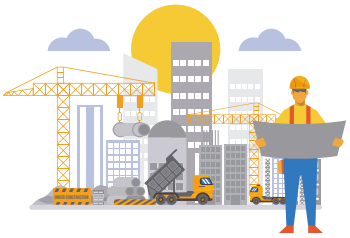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4일과 25일 제83회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예산액 없이 징수한 세입예산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명확히 추계하여 누락시키는 사례 없이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환경보건 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40건 중 2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9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2건은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건설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며, 생활악취 저감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시청을 비롯한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224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응급구호(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습형으로 실시하고 승무사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난 8월 28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적절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승무원들의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긴급현안질문

통학격차가 곧 학습격차입니다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은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현황을 짚어보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망 외 고등학교 배정현황 및 장거리 통학 여건을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대중교통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용인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력하여 '학교급식비 공동분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 이상을 통학 시간에 허비하는 것은 학습권 박탈과도 같다.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들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건설현장 촬영시스템 도입해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은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회

5 MIN

5분 자유발언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52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52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 54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55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57

5MIN 5분 자유 발언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즉시 건립 촉구

박란희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보건소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보건환경과 의료인프라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1.31명, 간호사 수 2.56명이며, 병상 수는 5.5개다. 이는 모두 평균 이하의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울러 세종시에 존재하는 19개 보건기관 중 보건소는 단 1개뿐인데, 이마저도 이미 세종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조치원읍(75개)에 설치되어 있다. 이에 불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27.7%의 시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제2보건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초과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남부권 보건소를 구축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김현미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구에서는 매년 50여 건의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3만에서 4만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러한 방문은 1천 5백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도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마이스(MICE)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예술의전당, 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국책연구단지, 이응교 등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들을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연결하여 국제회의 개최 등의 마이스산업으로 확장한다면 문화교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전자 점자 등 도입해 장애인 정보 습득 차별 최소화

김현옥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세종시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세종시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분석을 언급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미디어 접근과 정보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달리 세종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일정 규모 행사에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수어 영상 제공 및 점자 리플릿 배부 ▲공식 누리집에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지성 의원
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 국민의힘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윤지성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스마트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스마트팜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 스마트팜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농가의 87%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90%가 50대에서 70대로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에 적용된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1세대에서 1.5세대 정도로,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개폐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팜 육성이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제언했다.

개선방안으로 ▲제정을 앞둔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의 시행 이후, 체계적인 추진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확보 ▲농기센터의 임대시설을 '세종형 스마트팜 창업 보육센터'가 되도록 운영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지원책 마련을 제언했다.

5MIN 5분 자유 발언

김동빈 의원
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정책 필요

김동빈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 창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는 정책과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세종시 맞춤형 신중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년 세대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신중년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 ▲신중년 전문 상담 인력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해진 세대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 마련 촉구

이현정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되어야...

최원석 의원은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월 2023년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68개 과제에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신규가 아닌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고, 정책 대상에 청년층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실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금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정책이라 주장하고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게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 화순군의 신혼부부 월세 1만 원 주택지원 정책처럼 세종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김광운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41.3%)에 한참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할·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상향 등의 타시도 정책을 언급하며, 지역 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적극행정과 상호협력을 통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5MIN 5분 자유 발언

김영현 의원
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위한 개선 방안 제언

김영현 의원은 28일 제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인기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10월에는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전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미흡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였다"고 현황을 덧붙였다.

이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의 청구 기준' 규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 세 가지를 제언했다.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김충식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현재「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전몰군경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주시의 경우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종의 국가유공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어 세종시에 비해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라며,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
종촌동, 더불어민주당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경계선지능인,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갑시다

임채성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해 볼 때 전체인구의 약 13.6%에 이르고 학생인구 기준 교실당 적어도 3명의 아이가 경계선지능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분석 ▲학령기 경계선지능 아동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인프라 및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시했다.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세종자치경찰이 주도적 역할 해야

김재형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의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5MIN 5분 자유 발언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희망의 교실, 모두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다 함께 노력

김효숙 의원은 “교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역할 분담과 전문 인력 보강, 교내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논의는 종합대책 발표로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 제언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민원대응팀 구성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생화해중재원·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세분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교육 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문화와 인식 전환 노력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의 지지 표명과 관련해 공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엇갈린 정책 메시지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교육행정을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제안

여미전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를 위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약 84%로 사상 최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근속기간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4대 보험 적용률의 격차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16만 6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 2천 명으로 약 31%의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 휴식제도 등에 관한 전문 상담과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를 견인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민·관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역할 찾아야

유인호 의원은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협력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사업이지만 현재 업무 추진 내용은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과 추진한 국회규칙 제정촉구 서명운동 주도와 같은 선제적 역할에 한계를 보여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협력사무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국회세종의사당 지원업무는 대부분 동향 파악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월평균 5건에 밑돌고 있으며, 투자유치 지원업무는 세종시 현황 소개 정도에 그쳐 실질적 성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협력사무소를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조직의 전열을 정비하고 온 국민의 환영 속에 국회 세종 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언론 보도

충청매일 2023년 08월 20일 (지역)

세종시의회 행복위,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김오준 기자

영유아 급간식비, 운영비 논의 및 성장 발달 지원 등 토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어린이집연합회 및 보건복지국 여성가족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및 보건복지국 여성가족 등 직원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 7명과 옥태윤 연합회장 등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및 시청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의 급간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논의 △성장 발달의 지원 및 권리 존중 실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행복위는 집행보류부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 받고,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임채성 위원장은 "어린이집연합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오준 기자 ojkim1037@ccdn.co.kr

[충청매일] 2023.08.20. 행복위,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충청매일 2023년 08월 22일 (지역)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 '개방형 공간' 탈바꿈

김오준 기자

의정자료실 개관...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료실'의 개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2일 세종시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의정자료실의 개관식을 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개방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3~27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3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의정자료실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힘썼다.

의정자료실은 소규모 회의와 자료 열람, 휴게 등 다목적 복합 정보 활용의 장이자 개방형 공간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은 소속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지방행정과 의정활동 수행, 정책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제공해 의정 자료실이라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자료실은 지방자치와 의회 관련 전문도서 및 시청, 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용역자료와 간행물 등을 소장하고 있고, 현대 및 고전문학, 자기개발서, 일반 교양도서 등도 배가돼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시민이 자유로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오준 기자 ojkim1037@ccdn.co.kr

[충청매일] 2023.08.22.의정자료실 '개방형 공간' 탈바꿈

중앙매일 2023년 08월 23일 05면 (지역)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후 기념촬영 모습.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추지하차도 등 현장 방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21일 오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및 경제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현정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동참해 주추지하차도 관리사무소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테크노파크를 차례로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먼저 주추지하차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도로터널 운영 관리 용역 근무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주요 사설인 국도 1호선 지하차도 및 도로터널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주추지하차도 시설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일 태풍 '카눈' 의 영향으로 침수됐던 어진 지하차도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근무 인력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사오리 지하차도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세종창업기둥센터 등 기업 입주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융합산업센터 및 ICT이노베이션교육장, 웹툰캠퍼스, 청년희망내일센터 등을 운영 중인 세종테크노파크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기관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난 6월 조치원읍에 완공된 세종산업기술단지 본관동 시설을 점검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민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 / 김정연 기자

(11.7×20.2)cm

[중앙매일] 2023.08.23. 산업건설위원회, 주추지하차도 등 현장 방문 실시_ 지역 05면

충북일보 2023년 08월 24일 16면 (지역)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중요 발판 마련"

국회규칙 제정안 7개월만에 국회운영위 통과 세종시의회 "39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 논평

조속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23일 국회를 방문한 이순열(왼쪽 세번째)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승윤(앞줄 가운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 소식을 접한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지 7개월 여 만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시도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정신호 켜졌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소식을 알렸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발판이 되는 국회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도 시의원들과 함께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힘을 보탰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어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어 올해 1월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토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세종시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종시의회는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늦어진 면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정쟁이나 공방 없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작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세종 / 이종덕기자

(28.6×16.9)cm

[충북일보] 2023.08.24.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중요 발판 마련_ 지역 16면

굿모닝충청 2023년 08월 28일 (충청)

세종 반곡초 학생들, 시의회 찾아 의정활동 견학

박수빈 기자

제84회 임시회 현장 찾아 제1차 본회의 방청

세종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임시회 현장을 둘러보고 방청 에티켓을 배우는 등 의정활동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28일 반곡초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세종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임시회 현장을 둘러보고 방청 에티켓을 배우는 등 의정활동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28일 반곡초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마련된 행사는 지역구 의원인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의회 청사 견학, 의회의 기능 및 방청 에티켓 학습, 본회의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장으로 입장한 뒤 회의 내용을 경청하며 임시회 현장을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학생들에게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참여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방청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 직접 와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 더 실감 났다. 그리고 시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굿모닝충청] 2023.08.28.세종 반곡초 학생들, 시의회 찾아 의정활동 견학

충청뉴스 2023년 09월 14일 (자치의정)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최형순 기자

-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내 실무자 분기별 교육 시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 실시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키워 핵심 역량을 빠르게 습득해 입법 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자리는 분기별 교육으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과 6월 28일에 실시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지난 1분기 교육은 '자치법규 첫걸음'으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행했다. 또한 2분기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은 1분기의 심화 과정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에 대한 기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3일 시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유형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과장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위한 실제규정, 보칙규정 및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 직원 내부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충청뉴스] 2023.09.14.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_ 자치의정

세종방송 2023년 08월 31일 (정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이병기

30일 대구 EXCO에서 전기차 화재진압 전문 장비 및 소방용 드론 등 최첨단 시설 견학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위원들은 30일 대구 EXCO에서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관하고 장비 현장 시연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최신 전문 장비와 소방용 드론을 활용한 지상화재 진압, 구조 방법, 이동형 지상관제 차량에서 대형 모니터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 장비 시연을 관람하고 장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신 대용량포 방수차 등 소방기동장비를 비롯한 시설 안전 및 보안시설을 두루 살펴보며 세종시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모색했다.

또한 대한민국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 출전한 세종 119 구급대원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원들이 참여한 만큼 지역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직무상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소희 위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다채로운 장비를 살펴보며 발전하는 소방안전 장비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향후 소방본부 정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세종시가 소방안전 분야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방송] 2023.08.31.교육안전위,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_ 정치

뉴스충청인 www.cndnews.co.kr

인쇄 글자크기

세종시의회 신규·전입 직원 주요 시설 및 명소 현장 방문

[세종=뉴스충청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수목원 등 세종시 내 지역 명소와 주요 시설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은 오전에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수목원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LH행복도시 세종홍보관과 베어트리파크,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시설 조성 배경과 현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명소 및 주요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신규 및 전입 직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적재 적소에 확보하고 있다"며 "신규 및 전입 직원 대상 현장 방문이 직원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충청인] 2023.09.14. 신규전입 직원 주요 시설 및 명소 현장 방문

忠南日報 2023년 09월 07일 (대전/충남)

세종시의회, 세계대학경기대회 국비확보 총력전

김공배 기자

6일 국회방문, 경기장 등 기반시설 예산확보 노력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6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를 담은 성명서를 홍익표 국회 문광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홍성국 국회의원, 이순열 의장, 홍익표 국회의원, 김현미 의원)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027년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하계대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예산 감액없이 유지·증액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김현미 하계대회 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 갑)과 함께 국회를 방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순열 의장은 "대회조직위 출범이 늦어진데다 대회가 4년도 채 남지않아 대회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150개국 1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인 만큼 국회차원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수촌, 경기장 등 대회 기반시설 조성과 대회준비·운영 등에 투입할 국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현미 하계대회 추진 특별위원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속에서도 다행히 대회 준비 총예산 5812억원중 국비 1744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며 "넉넉지못한 재원으로 향후 감액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충청권 하계대회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저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며 "대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충분한 공사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시공으로 연결될수 있다"며 "현장을 시찰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대회준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560만 충청인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공배 기자 kkb1100@hanmail.net

[충남일보] 2023.09.07. 세계대학경기대회 국비확보 총력전

세종시의회, 인사권 홀로서기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드디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이는 1991년 6월 3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의 일이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아울러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게 됐다.

2023년 10월, 독립의 첫발을 뗀 인사권의 홀로서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변화의 시작을 최전선에서 함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팀 직원들을 만나 그 생생한 실무의 현장을 만나보자.

팀장 김동균

주무관 장래복

주무관 신수빈

Q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의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김동균 당시 본격적으로 실무에 돌입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 TF담당 구성원은 직원들의 관심을 받으며 제도적 독립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준비했다. 타 광역시의회를 벤치마킹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고, 인적 독립을 위한 전출입 수요조사도 이어갔다. 이후 지속적 협력을 위한 협약 준비로 분주했다. 집행부 인사담당자로 일한 경험에 비추어, 의회는 인사 때마다 인기가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될 즈음은 설렘과 어수선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제도적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유불리에 대한 개인적 결정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떠나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했다. 의회는 충분히 근무해볼 만한 곳이지만, 공직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한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Q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인사권 독립 이후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동균 실무적 측면에서 인사권 독립 이전의 의회는 상대적으로 결원 발생 걱정이 없고, 발령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결원 발생 시 집행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적기에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직접 채용을 진행해야 할 일이 생겨 그로 인한 부담도 있다. 업무량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내부 직원들의 관심도 커지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이 모두 가중됐다고 말할 수 있다.

장래복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인사팀은 승진, 발령만 하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도 법령을 챙기면서 할 일이 많이 있다.

Q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두고 '유명무실', '직권남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래복 유명무실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직권이 없으니 당연하다. 조직권을 비유하자면 집을 짓는 것이고, 인사권은 그 집에서 살림을 보는 것이다. 사용할 주체인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집을 지어주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물론 이는 세종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모든 의회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수빈 직권남용은 실무를 경험해보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으리라 생각한다. 인사권이 의장님께 있기는 하지만, 인사 분야는 다양하고 많은 법령이 정비되어있다. 쉽게 전횡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정말 많다. 오타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장래복 그렇다. 인사업무라는 게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위법이 된다. 인사는 공정과 신뢰가 핵심 가치다. 그래서 인사업무가 힘들다. 법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털어서 단 하나의 먼지도 나오지 않게끔 준비해야 한다. 사례, 타 시도 동향, 판례 등등 많이 알아봐야 한다.

김동균 초기에는 질의와 같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이라는 호재를 틈타 이행한 결과로 비판적 상황에 놓인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세종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아 그런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Q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관리의 어려움(합리적 승진체계 구축 어려움, 인재 기피, 인사교류 정체 등에 따른 전문성 약화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장래복 현재는 통합인사제도를 시행하여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몇 년 동안은 강원도 사례처럼 통합인사제도 또는 소수직렬 전원 파견제도를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김동균 개인적 측면으로는 평생을 근무할 의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며 부단하게 자기 계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의회는 직급별, 직렬별, 직종별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다. 동료 의식 또한 필요하다. 인사 업무적 측면으로는 순환보직, 적정규모의 지속적인 조직 확대, 적재적소 인력배치, 퇴직 요인 등을 감안한 인력수요 예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또한 중요하다.

Q **같은 맥락에서 인사권 독립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동균 장점으로는, 법률 개정의 취지대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업무지원에 있어 기존 임용권자 내지는 집행부 직원들과 법령상으로 절연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직원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리를 옮길 때 전보로 왔는데, 이제는 전출입으로 온다. 아마 호적을 팠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에서 이웃이 된 셈이다. 단점으로는, 인재 영입이 어렵고, 조직이 정체될 수 있다.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모두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신수빈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정기 인사발령 철에 집행부로 오가는 전보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옮기고자 하면 양 기관 간, 각 개인 간 4자 동의를 통해 전출, 전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부에 아쉬운 이야기나 부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했다기보다는 부모님께 용돈 받는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 집행부와 승진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Q **앞으로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장래복 거시적 관점으로는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는 시대적 여망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 제도, 상식에 따라 실리 있는 업무를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동균 2022년 인사권 독립 원년은 제도적 안착을 위한 기본 세팅 값 설정 단계였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의 취지나 의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여 심리적으로 독립했던 시간이었다. 2023년 인사권 독립 2년 차에는 정책지원관 등 인력을 충원하고 모든 전문위원실에 팀장급을 5급으로 배치했다. 여전히 작은 규모의 조직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부서별로 기본 틀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업무체계를 마련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적으로 충실해지는 단계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전처럼 한 식구는 아니더라도 늘 부대껴야 하는 이웃이 될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닌 긴장적 수평관계로 변한 것이 의회 입장에서의 순기능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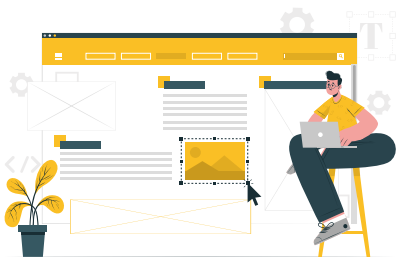
Q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팀에서 일하며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

김동균 타 시도에 견주었을 때 뒤처지지 않는 인사 체계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자부심도 느낀다.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으로 뒤처지지 않아 뿌듯하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채용업무를 해서 힘들었지만, 훌륭한 직원분들을 정말 잘 채용한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경력 채용이었더라도 단순히 경력만 높은 게 아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탁월하신 분들이 채용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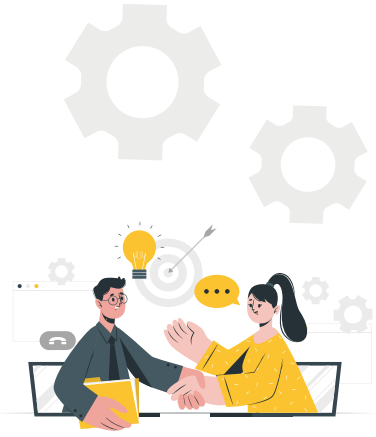
신수빈 전문성도 있고, 업무에 대한 훈련도 따로 필요 없이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은 것 같다. 물론 인사팀이 뽑은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서류를 낼 수 있는 기준을 적합하게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차다. 어떤 분야든, 어떤 분이든 오자마자 현장에 투입되고, 그 몫을 평균 이상으로 잘 해내신다.

Q 마지막으로 인사권 독립과 함께하는 세종시의회, 어떻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린다.

김동균 작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 가는 만큼 구성원 모두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회에 소속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직책에 따라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 얼마가 되었든 의회에 머무르는 동안은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함께 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배려와 존중, 상호이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조직 분위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곧 기관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업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탕도 된다고 본다.



장래복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행부로 전출을 가는 현상이 없다. 이는 그만큼 의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인사 체계가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 규정에 맞게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세종시의회만의 인사 체계가 뿌리내리길 바란다. 아울러 시민의 뜻과 기대에 맞게 의회가 운영되려면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전문가 양성 등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의회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 양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골고루 적당히 잘하는 능력보다는 지방의회라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집중적 역량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직원들 역량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겠지만,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의정 지원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의회 구성원 한명 한명을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도움을 주는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조직권자와 직원이 '주체와 객체'가 아닌 '주체와 주체'로 양립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곳. 그 어떤 조직이든 인사팀의 숙명은 그 이름 그대로 인간人을 들여다보는 일事이다.

지방의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움직임을 일궈내는 사람들의 뒤에는 언제나 인사팀이라는 '인적 시발점'이 있었다. 이제 곧 인사권 독립의 성년기를 마주할 세종시의회가 성공적으로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람의 발전과 사람의 행복 아래 함께 성숙할 세종시의회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_ 김영주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

*

22일 세종시의회 청사 1층 의정자료실 개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2일 세종시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의정자료실의 개관식을 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개방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3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의정자료실의 성공적인 개관을 준비했다.

의정자료실은 소규모 회의와 자료 열람, 휴게 등 다목적 복합 정보 활용의 장이자 개방형 공간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의정자료실의 문턱을 낮춰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기존 문서고 형식이던 폐쇄형 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고 좌석 및 와이파이 등도 비치했다. 자료실을 찾은 방문객들은 쾌적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편의를 누리며 책을 볼 수 있으며, 의회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발행물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재정비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은 소속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지방행정과 의정활동 수행, 정책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제공한다. 의회 구성원의 정보검색 요청에 따라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 논문, 기사 등을 제공해 '의정 자료실'이라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자료실은 지방자치와 의회 관련 전문 도서 및 시청, 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용역자료와 간행물 등을 소장하고 있다. 보유 장서는 총 4,132권이며 철학 기본서 및 현대·고전문학, 어학, 역사를 비롯한 일반교양 도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이 자유로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년/농/부/김/민/석

농업, 생산을 넘어 가공과 체험까지... 커리큘럼을 발굴해야 할 때

농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전원일기와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시골을 상상할 것이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작물은 매 끼니 식탁에 올라온다. 하지만 그저 어느 먼 곳으로부터 왔으리라 짐작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변화와 속도에 길들여진 청년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렇듯 농업은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먼 것'이다. 하지만 도심이 아닌 풀내음 속에서 젊음을 피워내는 이도 있다. 수확의 계절, 세종시 연서면 '방앗간 코리아'에서 청년농부 김민석 씨를 만나 '세종의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청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95년생으로 올해 만 29세다. 현재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인 농땡이 사업단에서 활동 중이며, 세종 4H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직접 짓는 농사 규모는 고추 4천 평 정도다. 친환경으로 짓고 있다.

Q. 젊은 나이에 직업으로 농부를 선택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제가 중·고등 학생일 무렵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면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다.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며 자연스럽게 농사와 친밀해진 것 같다. 고등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여지껏 경험했던 것 중에서 즐겁게 잘했던 것은 뭘까?'라고 되돌아보니 그게 농사였다. 농사지을 때 몸 쓰는 것도 잘했고, 일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농업의 미래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농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바로 세종에서 농사를 시작했다.

Q. 농업에 종사하며 예상치 못하게 어려웠던 점, 혹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좋은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초반에 정말 힘들었다. 농업을 시작하면 5년 정도는 돈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소요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 장점으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의 눈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에 다니면 꾸밈비용이 들어가는데, 농사를 지으면서는 편한 옷을 입으면 되니까 굳이 돈이 들지 않는다(웃음). 그래서 사회적 기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다.

Q. 세종에서 농업인으로 살아가며 느낀 장단점이 궁금하다.

가장 좋은 점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 공급 체계가 정말 잘 구축되어있다는 것이다. 작물을 정말 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세종시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점일 것이다. 단점은 엄청난 땅값으로 인해 아예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견을 내자면 농업인을 새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을 물려받은 승계농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나지 않아야 지역 농업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제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Q. 농업이나 농촌이 도시와 견주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런 공간들(방앗간 코리아)인 것 같다. 현재 농땡이 사업단에서 활동 중인데, 해당 사업은 연서면에 마련된 해썹(HACCP)시설과 쿠킹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이 작물을 생산한다는 1차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작물을 가공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과정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가 되길 소망한다. 농업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공간, 이것이야말로 농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닐까.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청년 농업인으로서는 지금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형 후계농 사업도 제가 딱 농업에 뛰어들었을 때 시작된 제도였다. 저도 수혜자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양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선발된 농업인들이 향후 어떻게 농촌에 정착하고, 어떻게 농사를 꾸려나갈지 등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발자들의 관리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아마 부족한 여건으로 이탈하는 수혜자들도 생길 텐데, 농업의 문화를 겪어본 사람들이 잘 머무를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세워진다면 좋겠다.

아울러 사업이 너무 청년 농업인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이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수혜의 대상에 기존 농업인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의 수혜가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 농부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글·사진_ 김영주

의정 주요 뉴스

230829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0907

이권 개입·부정 청탁 NO! '청렴 서약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7일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제84회 임시회 폐회 직후 열린 '청렴 서약식'을 통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청렴 서약서에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비롯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 이익 수수 및 갑질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계기로 부패·공익 신고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관 청렴도를 지속해서 향상해나갈 계획이다.

이순열 의장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사익이 철저히 배제된 공무 수행을 통해 의정 신뢰도 향상과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30913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13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리는 분기별 교육으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과 6월 28일에 실시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13일 시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과장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위한 실체규정, 보칙규정 및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 직원 내부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30914

신규·전입 직원 주요 시설 및 명소 현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14일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수목원 등 세종시 내 지역 명소와 주요 시설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은 오전에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수목원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LH행복도시 세종홍보관과 베어트리파크,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신규 및 전입 직원 대상 현장 방문이 직원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 주요 뉴스

230920

벨파스트市의회 관계자 등 영국 대표단 세종시의회 방문

9월 20일, 세종시의 우호 도시 '벨파스트市의회' 관계자 등 영국 대표단 10여 명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진 영국 대표단의 세종시 방문은 2021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Republic of Korea-UK Innovation Twins Project)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이순열 의장은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시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이며, 디지털, 금융, 사이버 테크놀로지 등을 중심으로 도심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도시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에 유사점이 많은 두 도시의 협력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230927

세종시의회, 청렴한 명절을 위한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7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에서 청렴 캠페인을 펼치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활동에 나섰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양 부의장을 비롯해 의원 11명, 직원 30여 명이 청렴한 명절맞이를 위해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을 찾았다.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제사용품 등을 구입했다.

특히 세종시의원들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지역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번 추석 맞이 전통시장 방문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병행해서 더욱 뜻깊었다"며 "올 추석에도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모임 뉴스

230809

인사혁신처 찾아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모색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 회원들은 8월 9일 오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및 인물정보 활용 방법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30개 전문 분야 약 36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인재 수집 방법과 이를 통한 인물 정보 활용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선진 운영 방식과 인재 등록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현옥 대표의원은 "세종시에 적합한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230821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미, 이하 연구모임)'은 8월 21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최원석, 김재형 의원과 김세환, 황성하 교수, 정민회 변호사 및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종·대전 간의 실현 가능한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종·대전 지역 체육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더불어 오는 10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모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구 모임 뉴스

230904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용역 중간보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4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교육자유특구 관련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세종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30914

자치경찰제도 발전연구모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인호)'은 9월 14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유인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김동빈, 이현정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 전원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자치경찰연구모임(세종시 현직 경찰모임), 세종시자율방범대 등 자치경찰과 관련된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연구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항으로는 ▲세종시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변화 ▲치안 현황 및 향후 치안 수요 ▲기존 자치경찰제도 설문 조사 분석 및 심층 면접 결과로,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분석해 자치경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유인호 대표 의원은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회

입법정보

Ⅰ 생 활 법 령 • 78
Ⅱ 주요입법동향 • 80
Ⅲ 법령해석사례 • 84
Ⅳ 최근시행법령 • 88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 90

I 생활법령

사례 01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나아비가 사망하자, 이새모와 나장남은 나아비의 유해를 재단법인 송별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장녀와 나차녀는 이새모와 재단법인 송별을 상대로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된 나아비의 유해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① 나장녀

내가 제일 연장자이니 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제사주재자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해를 속히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② 나장남

제가 장남이고 제사주재자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는게 맞죠~! 따라서 나장녀와 나차녀에게 아버지의 유해를 인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③ 재단법인 송별

봉안당에 봉안되어 있는 유해는 분할이 가능한 뼛가루 형태이니, 아버지의 유해를 절반씩 나누어 각각 보관·관리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시면 됩니다.

평결

정답은 1번. "나장녀: 내가 제일 연장자이니 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제사주재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해를 속히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민법 제1008조의3과 관련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그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이 현재의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으며, 기존 법규범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를 조금씩 수정·변형하여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사용 재산을 유지·보존하고 그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정한 1인을 제사주재자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과 현행 법질서 및 사회 일반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 우선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므로, 나장남은 나장녀에게 아버지의 유해를 인해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 결 일 : 2023년 8월 7일

참조판례 :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Ⅰ 생활법령

사례 02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에는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A중학생은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억지로 쓰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중학교는 「B중학교 생활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 봉사활동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 · 교구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등 지도활동의 일환으로 사과편지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① A 중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학교 내 봉사'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봉사활동과 상관없는 사과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다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

② B 중학교

우리학교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 내의 봉사' 징계처분에는 심성교육이 포함되고, 그 일환으로 잘못한 대상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지도활동에 해당합니다. 징계 외의 지도방법으로 반성문 작성도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 사과편지 작성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평결

정답은 1번. "A중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내 봉사'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봉사활동과 상관없는 사과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다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으로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학교 내의 봉사'의 내용으로 열거된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교구정비는 모두 학사행정이나 교육활동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역시 이와 동일한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비록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9조제2항에 '심성교육'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학교 내의 봉사'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봉사'에 관한 지도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의 봉사'의 내용에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참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징계가 갖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처분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는 없고, 그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다양한 상황 및 이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학생의 특성 기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본심에 반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사과편지작성'이 언제나 그 작성자의 심성에 유익할 것이라거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② 위 학교생활규정 제31조제2항에서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 외의 지도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학교 내의 봉사의 징계 내용으로 사과편지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③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도 명시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 행위를 대상으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서의 봉사와 명백히 구별되는 조치인 이상, 이를 근거로 교사에 대하여 사과편지를 작성할 것을 명하는 사과편지작성이 징계처분인 학교 내 봉사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으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 결 일 : 2023년 7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Ⅱ 주요입법동향

01 최근공포법령

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3. 15. / 법률 제19719호)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과 설계빈도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침수피해 방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15. / 법률 제19716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자료 등의 처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3. 9. 19. / 대통령령 제33730호)

•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 중 구상채권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임차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316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구상채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인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정하려는 것임.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1.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회)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 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함.
-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 · 제11항 신설 등).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3.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등 10인)

-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이 밖에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03
최근 국회 접수 법안(주요법안)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등 12인)

-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등 10인)

-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등 16인)

-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사적자치 영역임에도 사유지의 관리자가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강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동 및 보관 조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04 최근입법예고 (주요법령)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견제출 '23. 9. 24. 까지)

-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현역 테러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차량 충돌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사정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책임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어 피해자 구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타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건별 금액책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23. 9. 27.까지)

-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 ·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제11호).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3. 9. 28. 까지)

-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농수산물 과소생산 등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수산물의 유입 혹은 비축 농수산물 유통으로 인해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농수산물 과다생산 등의 이유로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Ⅲ 법령해석사례

사례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

질의(법제처-23-0429/ 회신일자 2023. 8. 28.)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질의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함)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개 이상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시설로서,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는 50개 미만이나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복합시설 전체의 총주차대수는 50개 이상인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같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이하 "설치대상시설"이라 함)'에 해당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이 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의 각 목에서는 건축법령 등에 따른 용도별 시설을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용도별 시설이 2개 이상 복합되어 하나의 복합시설을 이루는 경우 해당 복합시설의 총주차대수를 '전체 복합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총주차대수를 산정하여 50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대상시설로 인정하려는 의도였다면, 같은 조에서 현행과 같이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시설로서 각각의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고 기술하였을 것이라는 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설치대상시설의 요건을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대상시설의 '규모' 또는 '다수 대중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된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복합시설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복합시설 전체의 총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단일 용도의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과 2개 이상 용도의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서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전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모두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친환경자동차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치대상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설치대상 시설의 유형과 범위를 정하고, 실제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같은 영 제18조의5에서 설치대상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여 정하면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범위가 축소되어 당초 설치대상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과 같은 복합시설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로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법령해석사례

사례 02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

질의(법제처-23-0509/ 회신일자 2023. 9. 12.)

②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이라 함)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은 그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1개나 2개의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하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이라 함)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에 따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을 같은 항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은 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개 미만의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내 활동범위가 1개 또는 2개의 시·도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도 활동한다고 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에게는 정관변경 등 행정 업무를 그 주된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는 관할 구역 안의 비영리법인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각주: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1호로 일부개정된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활동범위가 해외에 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1차적으로는 수임기관에게 귀속되는데, 만약 법령에 규정된 것과 달리 수임기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위임기관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행정권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점(각주: 법제처 2023. 3. 17. 회신 23-0209 해석례 참조),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고시하는 방법을 통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의 행사 주체를 달리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최근시행법령

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3. 8. 30. 시행)

• 문화 · 예술 · 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 ·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0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9. 1. 시행)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03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 '23. 9. 1. 시행)

• 드론에 의한 공중침투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적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 ·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9. 12. 시행)

•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 ·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도 도서관 면적 264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및 3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9. 12. 시행)

•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위한 출자금 보유기준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로서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 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읍 ·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로서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 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읍 ·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 '23. 9. 19.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9235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 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1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23. 9. 1.]

제안이유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 ·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대건조물 및 특화거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나.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제7~8조)

다.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제9~10조)

라. 근대건조물의 점검 및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3. 9. 14.]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인재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울주군의 기술 ·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장인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나. 청년장인의 책무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다.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제8조)

라.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

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23. 10. 5.]

제안이유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나. 경로당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6조)

다. 경로당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8조)

라. 경로당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세종시의회 2023년 하반기 회기 일정 안내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8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4회 임시회 : 8.28. ~ 9.7.(11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청취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광복절 : 8.15.

9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추석 연휴 : 9.28.~30.

10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5회 임시회 : 10.12. ~ 10.27.(16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예정)

※개천절 : 10.3. ※세종축제 : 10.6.~9.
※한글날 : 10.9.

11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제86회 제2차 정례회 : 11.13. ~ 12.15.(33일)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
-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 답변
-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조절 추경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 11.16.

12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성탄절 : 12.25.

■ 본회의 예정일 ■ 상임위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계간 〈세종의정〉**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싣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I 가을호 I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